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와 미니멀리즘

Lili Reynaud-Dewar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About the artist:

릴리 레이노-드와는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와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몸과 섹슈얼리티, 권력관계, 제도적 공간 등과 관련된 쟁점들을 탐구해왔습니다. 텍사스의 마르파에서 촬영한 영화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는 예술 활동에서 의미를 찾으려 분투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까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숙명으로서의 예술 경력이 드러내는 모순과 모호함에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릴리 레이노-드와는 예술과 토지, 사상과 자유의 사유화 및 상품화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합니다.

As a writer and artist, Lili Reynaud-Dewar has explored the issues of body, sexuality, power relations, and institutional spaces through film,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text. Lili Reynaud-Dewar recently shot a short movie,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in Marfa, Texas, depicting a group of young artists struggling to find meaning in their engagemen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They relentlessly question the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 the art career they are about to embrace entails, through which Lili Reynaud-Dewar proposes to think together on the various issues of the gentrification and the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art, land, ideas, and freedom.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Installation view

예술이라는 이름의 악몽?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는 전시장에서 처음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은 밝은 조명을 받아 화려하게 반짝이는 유리 패널들이다. 그러나 화려함도 잠시, 가까이에서 마주한 패널에는 피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기괴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듯, 무언가에 홀린 듯 불안하고 불편한 공기를 드러우고 있다. 유리 패널들 사이에서 반복 상영되는 영상 작업들 역시 이 불안하고 불편한 공기에 무게를 더한다. 화려하고 눈부신, 그러나 기괴하고 불편한 공기로 가득한 이 공간을 통과해 관람객들은 드디어 릴리 레이노-드와의 영상 작업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2018)를 마주한다.

마르파. 텍사스에 위치한 작은 도시. 몇몇 젊은이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마르파의 건축물과 미술관, 서점 등을 둘러보고, 카페에서 잡담을 나누고, 파티를 즐긴다. 이어서 누군가가 악몽을 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참여하게 될 세미나에 관해 떠도는 이상한 소문을 주고받던 그들은 이윽고 차를 달려 황량한 벌판에 있는 외딴 건물에 도착한다. 이렇게 시작된 영상 작업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는 릴리 레이노-드와가 2017년 가을에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에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구상되고 실현된 것이다. 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오래된 외딴 오두막집을 찾아오는 십 대—어쩌면 이십 대—들과 인솔자, 그들의 파티와 핼러윈, 그리고 연이어 발견되는 시체와 좀비까지 호러 영화의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변형하여 구성된 뼈대에 릴리 레이노-드와는 예술에 대한 고민과 의심, 논쟁과 질문들을 채워 넣는다.

작가 릴리 레이노-드와와 그의 학생들이자 예술 활동의 의미를 찾으려 분투하는 젊은 예술가 일곱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실제로 텍사스의 사막으로 저명한 예술가와 큐레이터, 미술사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여남은이나 되는 사람들은 황량한 벌판에 둘러앉아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던진다. 예술 작품과 화이트 큐브의 기능으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천연자원과 문명의 관계, 퍼포먼스와 초기 미니멀리즘의 영향, 실험적인 형식의 예술 잡지, 예술과 검열 문제, 미술 시장과 아티스트 피 등 예술과 사회, 자본이 뒤얽힌 다양한 쟁점들로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마르파와 이곳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리즘의 맥락이 존재한다. 모더니즘 최후의 스타일로 혹은 1960년대 형식주의의 종결점으로 자리매김되는 미니멀리즘의 실질적인 리더인 도널드 저드(1928-1994)는 자신의 작업을 영구 설치하기 위해 1968년에 처음 뉴욕에 건물을 구입한 이후, 1973년부터 마르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 일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곳에 자신과 동료 작가들의 작업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일을 지속했다. 이러한 도널드 저드의 의지는 전시장과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포괄하는 치나티 재단과 저드 재단의 설립을 통해 보다 확고하게 가시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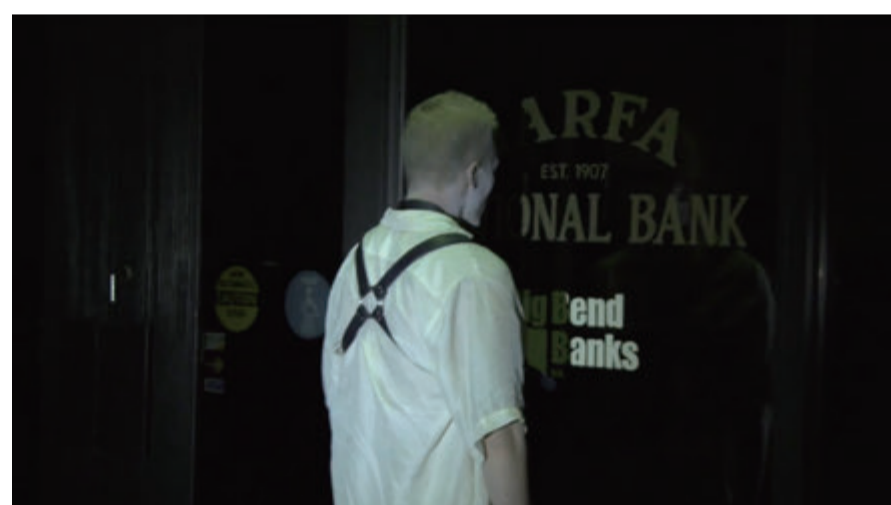
A Nightmare Named Art?

What greets the viewers first at the gallery with a red carpet on are the flamboyantly glittering glass panels with the bright light being reflected. And yet, soon after the short-lived glamor, the panels being encountered up closer reveal a seemingly haunting atmosphere with anxiety and discomfort as if people either splashed with blood or wearing bizarre attires feel appalled. The repeatedly played video works between the glass panels add a heavy tone onto the atmosphere that imbues anxiety and discomfort. After passing through this space filled up with a glamorous, yet bizarre and uncomfortable atmosphere, the viewers end up encountering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2018), a film of Lili Reynaud-Dewar.

Marfa is a small city located in Texas. A group of young people listen to the guides and look around at Marfa's buildings, museums, bookstores, chat at cafes, and enjoy parties. And then one of them has a nightmare. Having talked about some strange rumor on a seminar they are to attend after coming back to their ordinary routine, they arrive at a remote building on a desolate field by driving their car. The film of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that started against such a background was conceived and realized by Lili Reynaud-Dewar as she took part in a residency program in San Antonio, Texas in the autumn of 2017. The frame in her work is configured by vigorously borrowing and modifying clichés of horror movies—a cohort of teenagers and their guide coming to visit an old and remote shack for a holiday camp, their party and Halloween, and serally discovered dead bodies and zombies. Lili Reynaud-Dewar fills in her thoughts, doubts, debates and questions on art into this frame.

Main characters in this film are Lili Reynaud-Dewar and seven young artists passionately striving to discover meanings in their artistic practices who are also students of Lili Reynaud-Dewar. The film is set on a desert in Texas, representing a course of holding a seminar inviting renowned artists, curators and art historians. A dozen people would sit on the vast field in a circle, sharing their interests and asking questions sometimes seriously and in other times joyfully. Their stories that started from the relations between artworks and the white cube are expanded into diverse issues intertwined with art, society and capital, including the relations between natural resources and a civilization, the performances and the early influences of minimalism, art magazines in experimental forms, art and censorship, and the art market and artists' fees.

At the core of the discussion lies the context of minimalism and Marfa. Donald Judd (1928-1994), a de facto leader of minimalism considered as the last style of modernism or the endpoint of formalism of the 1960s, purchased his first building in New York in 1968 to install his works permanently. Having started buying the real estate in Marfa from 1973, he continued permanently installing his work and the works of his contemporaries there until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HD, 81 minutes 50 seconds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Installation view

영상 도입부의 대화에서도 암시되듯, 도널드 저드라는 낯선 이방인의 이주는 광활한 사막의 풍경을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 마르파는 예술 관광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한다면, 텍사스 서부 사막의 작은 도시, 그리고 이제는 미니멀리즘의 메카가 된 마르파에서 벌어지는 예술에 관한 논의가 예술의 상업화와 사유화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과 외부인의 유입, 이로 인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변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추궁하게 된다.

특히나, 모더니즘이 구축해온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동력 삼아 등장한 미니멀리즘의 양가적인 위상은 미술의 종말이 선언된 이후,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을 유산(遺産)으로 물려받은 현재의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모순과 모호함 그 자체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그 미니멀리즘의 본산(本山)인 마르파 한가운데서 그들은 끝없이 악몽에 시달리는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영상의 악몽 장면에서는 도널드 저드의 작업들이 등장하는데, 그의 서명과도 같은 이 육면체들은 빨간색 필터를 통해 변조되거나 유령처럼 마르파의 대기 위를 떠돌며 피를 뒤집어쓰거나 악령에 사로잡힌 듯 기괴하고 섬뜩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과 더불어 악몽의 시공간을 가득 채운다.

지극히 아름다우며 평화로운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도시 마르파. 이 미니멀리즘의 영토에서 젊은 예술가들은 미니멀리즘이 남긴, 여전히 견제할 예술적 유산을 발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도 해체할 수도 없는 기성 권위의 공고한 장벽을 마주한다. 이곳에서 열리는 이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는 그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미니멀리즘의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가장한 세미나 장면들과 교차하며 영화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호러 서사(敘事)는 그 존재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

끔찍한 악몽을 꾸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이들은 일행 중 몇몇이 이상한 옷을 입고 마치 사악한 기운이나 악령에 사로잡힌 듯 기묘하고 섬뜩한 춤을 추거나 의식(儀式)을 행하며 들뜬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일행 모두가 악령에 홀리게 되는 이 영상 작업의 결말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린 듯 춤을 추는 릴리 레이노-드와의 모습은 자신의 몸을 저항의 도구 혹은 수단이라고 했던 작가의 언급과 중첩되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모르겠어요.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신을 위해 어떤 상황을 상상하나요?”

릴리 레이노-드와의 몸은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지배하는, 여전히 공고한 규범과 제도에 유의미하게 침투할 수 있을까. 영혼을 뺏긴, 껍데기만 남아 있는 좀비의 몸은 미니멀리즘으로, 예술로 표상되는 기성 권위에 저항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의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혹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미니멀리즘은, 예술은, 혹은 기성 권위는 결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인 것일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이 질문들인지도 모르겠다.

— 김윤경

his death in 1994. Such willingness of Donald Judd is more firmly crystal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inati Foundation and Judd Foundation which encompass spaces, libraries, and archives.

As implied in the convers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the migration of Donald Judd as a stranger to the new place transformed the landscape of a vast desert into giant works of art, and since then Marfa has emerged as a hot spot for art tourism. Given this background, the reasons why the discussion on art in Marfa—a small town on a desert in the western part of Texas and now a mecca of minimalism—was inevitably expanded into such a broad scope, ranging from th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art to the gentrification and the influx of outsiders, resulting in changes in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s would sound somewhat relatable.

Especially, the ambivalent prestige of minimalism that came into being, driven by the harsh criticism against the institutions established by modernism seems to be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 to contemporaneous young artists that have embraced the remains of minimalism as its legacy after the end of art was declared. It must be why they are endlessly haunted by a nightmare in the middle of Marfa, the home of minimalism. In fact, the nightmarish scenes show the works of Donald Judd, and his signature-like cubes fill up the nightmarish time-space along with the bloody figures that appear in bizarre and scary images as if they are haunted by some evil spirit.

A small town of Marfa located in the middle of an utterly beautiful, yet peaceful desert. Young artists, on this land of minimalism, not only discover the still vivid artistic legacy left by minimalism but also confront the robust wall of the established authority that cannot be overcome or demolished. They all suffer from the same nightmare over the course of the seminar and what dominates their subconsciousness is the traces of past that are still living in the name of minimalism and hard to get rid of. Here, the horror narrative serving as another axis in the film by alternating with scenes of the seminar came to have its reason for being.

During their appalling nightmare or having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from a nightmare, they witness that some of the people there wear strange clothes, and dance a bizarre and eerie dance as if being haunted by some evil spirit or perform a ritual, roaming about the field. What would the end of this film where everyone is haunted by the evil spirit aim for? The image of Lili Reynaud-Dewar seemingly mesmerized in dancing in the darkness raises a significant question, which is overlapping with the artist's mentioning that her body is a tool or means for re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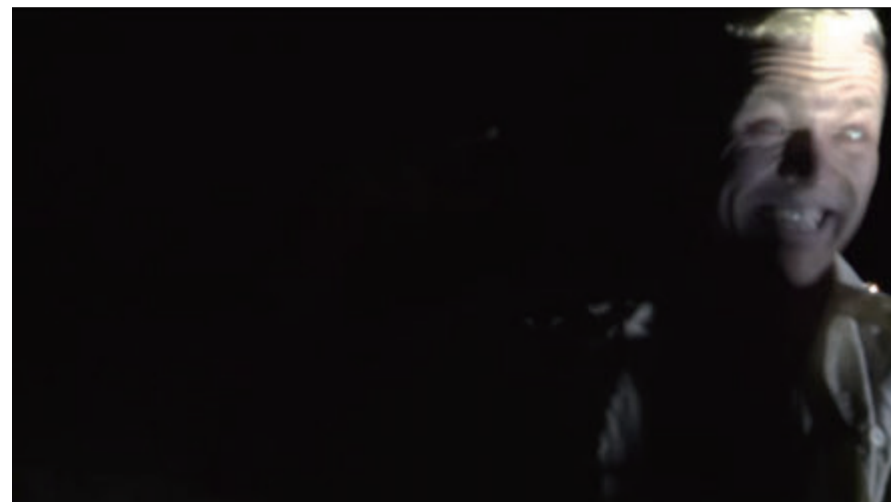
“I don't know. How do you feel, how do you see your work, or yourself, or your position? Maybe in the future, how do you want to be? Or are there ways for you being in this world? Or how do you imagine things for you?”

Would the body of Lili Reynaud-Dewar significantly penetrate into the firm rules and institutions that stand before us and dominate us? Would the body of a zombie whose spirit is taken away and is only left with its surface be able to resist the established authority of minimalism or art? How should we accept the tangible/intangible legacy which enable us to exist as we are and still dominate us? Or how should we overcome it? Would minimalism, art or the established authority be a nightmare where one cannot ever get out of? What is left for us might be these questions.

— Kim Yunk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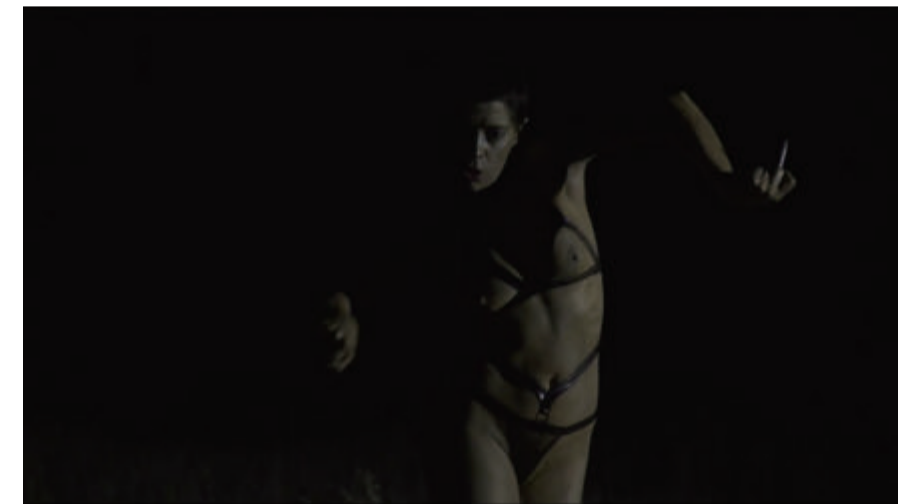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Installation view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Arttu's Dance)*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4 minutes 33 seconds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Drive to Marfa)*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4 minutes 20 seconds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Lili's Dance)*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4 minutes 14 seconds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 프로그램, 현대 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처-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men and women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 operates eight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 -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3* is the Fou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z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The Fou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ATELIER
HERMÈS**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영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to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to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to 7 PM

Review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entitled *Beyond the Land of Minima*. *Possessions* by Lili Reynaud-Dewar held at Atelier Hermès from 1 June to 29 July 2018.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Catherine Tsekenis
Head of Communications: Sacha Gueugnier
Head of Projects: Clémence Fraysse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Hong Suhhee

Exhibition Curator & Editor: Kim Yunkyong
Text: Kim Yunkyong
Translator: Choi Kiwon
Graphic Designers: Kang Gyeongtak, Jang Yoonjung (a-g-k.kr)
Exhibition Photographer: Nam Kiyong

About the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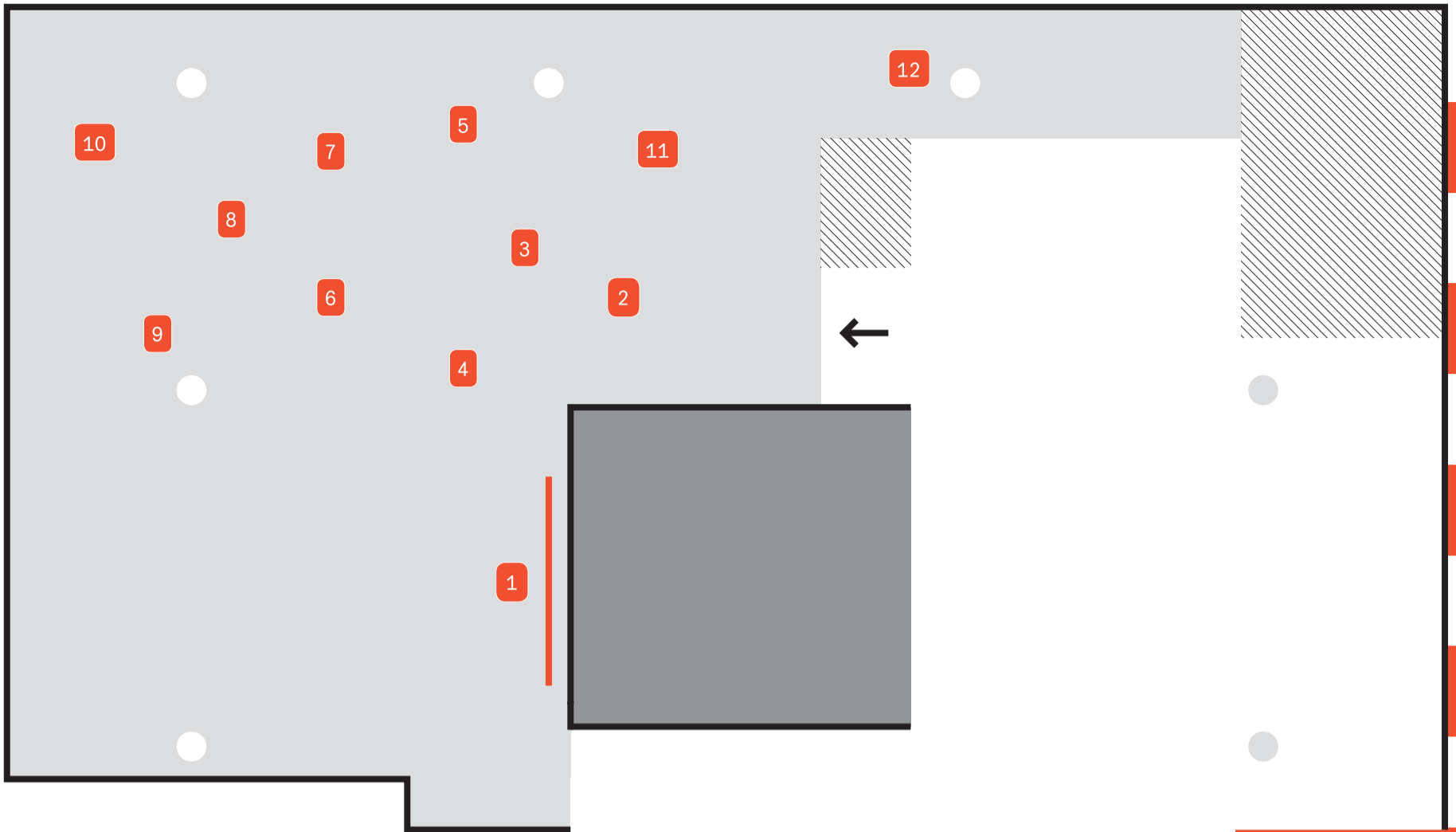
오민의 카메라는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긴장된 순간의 표정들을 포착합니다. 언어적인 논리로 구성되는 화면이 아니라 독립적인 장면들이 콜라주처럼 이어지는 오민의 영상 작업은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동세에 관한 것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2018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오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음 전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Oh Min's camera captures the facial expression of a tense moment, which is generated in a situation where one is constantly going to, or cannot help going to with clearly knowing no point of starting or ending. Her video consists of a collage of independent scenes with this thinking face, rather than a series of each scene being constructed according to linguistic logic. An analogical inference based on the unintentional and the uncontrollable is the way to access a certain movement in mind embodied on the thinking face.

Oh Min is the 17th laureate of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nd Atelier Hermès is preparing for its next exhibition with her new projects.





1.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HD, 81 minutes 50 seconds

A film written by

Bianca Benenti, Joana Castilhos, Yannis Christ, Thomas Le Lann, Trystan Matthey, Arttu Palmio, Lili Reynaud-Dewar, Claire Van Lubeeck and Victor Zébo

With Bianca Benenti, Sandro Canovas, Joana Castilhos, Yannis Christ, Chad Dawkins, Dorothée Dupuis, Heyd Fontenot, Peter Friel, Thomas Le Lann, Trystan Matthey, Arttu Palmio, Lili Reynaud-Dewar, Mireille Rias, Laurent Schmid, Michael Smith, Ida Soulard, Ramaya Tegegne, Claire Van Lubeeck, Martha Wilson

Director of Photography
Victor Zébo

Sound Engineer
Laurent Schmid

Editing
Nicolas Bacou

Music
Nicolas Murer A.K.A Macon

Special Effects (dreams)
Hugo Scibetta

Make-up Artist
Trystan Matthey

Production Assistant
Christine Olenijczak

2.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Lili)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3.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Claire)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4.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Thomas)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5.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Bianca)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6.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Arttu)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7.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Trystan)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8.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Joana)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9.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Monument for Yannis)
2018, Glass, silk, lacquered metal, 193 × 75 × 28 cm

10.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Lili's Dance)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4 minutes 14 seconds (looped) w/ lacquered metal structure (180 × 96 × 40 cm)

11.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Arttu's Dance)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4 minutes 33 seconds (looped) w/ lacquered metal structure (180 × 96 × 40 cm)

12.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Drive to Marfa)
2018, Single-channel video & stereo sound, 4 minutes 20 seconds (looped) w/ lacquered metal structure (180 × 96 × 40 cm)

ATELIER
HER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8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미니멀리즘이 남긴 것, 그 너머
2018. 6. 1 – 7. 29

Beyond the Land of Minimal Possessions
June 1 – July 29, 2018